

월요논단



김 태 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우도(牛島)와 성산읍을 잇는 4.53km의 케이블카 설치계획서가 도청에 제출됐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접하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과거의 논란이 됐던 한라산, 비양도의 케이블카 설치사업들이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끊이지 않는 계획 추진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제주에서 케이블카 설치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5·16 군사혁명정부가 들어선 후 조직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임명, 파견됐던 김영관 전 도지사 시절로 거슬러 간다. 김영관 전 도지사는 1963

케이블카 콤플렉스

년 1월 도정발표에서 일주도로 확포장을 비롯해 항만 확장,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관광호텔 신축 등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주목할 것은 계획 속에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한라산을 최고의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방식 중의 하나가 케이블카였다. 당시만 해도 관광은 인위적인 개발을 통한 유흥과 놀이 중심의 공간개발이 관광의 주류를 이루었던 시대였기에 한라산 정상으로 향하는 케이블카 설치하는 다른 관광지와 차별화되는 중요한 관광개발의 수단이 됐을지 모른다. 다행히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으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하는 다시 백지화됐다.

이후 수 십년이 지나 2009년에 들어서 다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가 제주사회의 논란됐다. 당시 환

경, 경관, 경제분야전문가로 TF를 구성해 타당성을 검토했고 도지사에게 전달한 건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검토대상이 됐던 영실노선 시점부 권역의 시설들로 인해 천연림 훼손이 큰 환경적 영향요인이며, 둘째 중간지주 설치와 종점부 시설로 인해 한라산 아고산대의 자연생태계를 대표하는 선작지와의 큰 훼손이 우려된다. 셋째, 한라산 정상 및 선작지와의 근거리 경관훼손이 크고 1100도로서 바라보는 중거리 경관 또한 지주구조물의 노출정도가 크다. 넷째, 한라산 로프웨이는 환경보호시설보다 이용시설로써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한라산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가 백지화됐다. 경제적 관점보다는 경관과 환경혜

손의 우려를 수용한 것이었다. 이어서 2013년에는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제주도에 제출됐고 논란이 됐으나 이 역시 비양도 케이블카 선로가 절대보전지역 상공을 통과하는 계획으로 인해 백지화됐다. 수년이 흘러 이제는 우도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하니 제주사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우도를 소가 머리를 내밀고 누워있는 형상에서 붙여진 것처럼, 땅이 만든 지형과 풍경, 그리고 바다와 함축돼 있는 장소이다. 2019년 해양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면서도 연륙교와 해중전망대 설치, 케이블카 설치와 같은 인위적인 관광시설물을 설치해야 만이 개발되고 발전한다는 강박관념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제주사회에 여전히 케이블카 콤플렉스가 있는 것이 아닐까!

사설

막대한 피해 어선화재, 선석구조 개선을

최근 잇따른 어선화재가 엄청난 피해를 내 충격이다. 성산·한림항 어선화재 피해가 인명 5명에 다 재산 40억원에 이른다. 어선화재 큰 피해는 여러 원인중 항내 선박들의 ‘밀집 정박’을 더 지목하는 분위기다. 행정이 화재예방 활동서 더 나아가 선석난 해결과 정박 간격을 벌일 선석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번 어선화재는 항내 한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번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7월 한림항 어선화재는 한 어선서 발생, 옆에 두 척 어선으로 번지며 피해를 키웠다. 선원 2명 실종·3명 중경상 인명피해에다 10억원 넘는 재산피해를 냈다. 성산항 화재도 비슷했다. 지난 4일 성산항내 한 어선서 불길아 치솟았고, 바로 3척 어선화재로 이어져 거의 30억원 피해를 냈

다. 피해 확대가 섬유강화플라스틱 FRP라는 선박 재질 탓도 있지만 항내 ‘밀집 정박’에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주목해야 한다. 그만큼 어선화재 피해를 줄려면 항내 구조상 밀집 정박 현실을 바꾸는게 급선무라는 얘기다. 도가 ‘전 선박 소방안전점검 및 항포구 방재시설 점검’이란 도지사 특별지시 이행도 중요하지만 항내 어선정박 방식 개선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선들이 계속 커지고, 만성화된 선석 부족에 밀집 정박을 당연시 여겨선 안된다. 외국은 항구이며 피해를 키웠다. 선원 2명 실종·3명 중경상 인명피해에다 10억원 넘는 재산피해를 냈다. 성산항 화재도 비슷했다. 지난 4일 성산항내 한 어선서 불길아 치솟았고, 바로 3척 어선화재로 이어져 거의 30억원 피해를 냈

열린마당

동홍119센터 소방 실습을 마치며



김 준 상
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2학년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로 실습에 나갔다. 다양한 환자들을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과 동시에 구급대원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인사를 드렸다. 계셨던 분들 모두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편안하게 실습에 임할 수 있었다. 동홍119센터는 출동이 많았는데, 이러한 바쁜 와중에도 반장님들께서는 시간을 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알려주셨다. 구급차 내 장비

소개부터 감염관리실 내부 설명, 출동 시 무조건 챙겨야 할 장비들, 들것 사용법, COVID-19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레벨 D 및 4중 보호구착·탈의법 등 이외에도 많은 것을 알려주셨다. 반장님들을 따라 학생들의 CPR 교육을 하러 갔을 때도 처음이라 많이 떨려 말이 어눌한 부분도 있었지만 반장님들은 칭찬도 해주셨다. 실습하기 전 4주는 너무 긴 시간 같았는데 벌써 3주가 지나고 나니 시간이 짧은 것 같아 아쉬웠다. 출동을 나갈 때마다 같이 일하는 대원처럼 믿어주시고 의지를 해주니 시간 소방관의 꿈이 더욱 더 확고해지게 됐다. 이번 실습 경험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동홍119센터의 반장님들과 같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소방관이 되기 위해 온힘 다해 노력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공공근로 651명 선발에 1590명 신청

폭염에 전력수요 잇단 경신

○…이른 폭염이 맹위를 떨치면서 제주지역의 전력사용량이 여름 최대치를 잇달아 경신. 도내 최대전력수요는 지난 7일 오후 104만8000kW를 기록하면서 바로 전날인 6일(102만6000kW)의 여름 최대치를 하룻만에 다시 경신했고, 8일에도 최대수요가 102만7000kW로 사흘 연속 100만kW를 상회.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제주에선 그동안 여름 휴가가 절정을 이루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여름 최대전력수요를 보여 왔는데, 올해는 이른 더위로 그 시기가 7월 초로 앞당겨졌다”며 “앞으로도 기록 경신이 이어지면서 이번 여름에 도내 역대 최대전력수요(올해 1월 13일 107만4000kW)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문미숙기자

제주시 하반기 1400명 채용

○…제주시가 최근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총 1590명이 신청했고 가구소득, 재산 상황 등 참여 자격 기준 심사를 통해 651명을 선발했다고 10일 발표. 9월 30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공공근로사업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지에 따른 해수욕장과 체육시설 운영 지원,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등으로 제주시는 폭염에 대비해 공공근로 참여자에게 쿨도시, 쿨스카프를 지급하는 등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시는 상반기 총 1057명을 채용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는데 하반기에도 사업확대를 위해 1회 추경에 80억원 추가 편성해 1400명을 채용할 계획. 전선희기자

원숭이두창 해외 확산, 만반의 대비해야

원숭이두창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초 영국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그 기세가 빠르다. 원숭이두창은 감염 후 평균 잠복기는 7~21일이다. 눈에 띄는 증상은 피부 등에 불룩하게 올라오는 병변이 혀와 입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초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원숭이두창 방역대책반을 구성한데 이어 자체 진단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숭이두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자체 신속 확인 진단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숭이두창과 관련 숙련도 평가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 현재 원숭이두창의 도내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신

속 검사를 진행할 모든 준비를 마친 것이다. 제주의 경우 질병관리청에 확인 검사 의뢰시 결과가 나오기까지 3~4일이 걸린 뒤 후 평균 잠복기는 7~21일이다. 눈에 띄는 증상은 피부 등에 불룩하게 올라오는 병변이 혀와 입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초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원숭이두창 방역대책반을 구성한데 이어 자체 진단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숭이두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자체 신속 확인 진단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숭이두창과 관련 숙련도 평가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 현재 원숭이두창의 도내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신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전주이공 군보(前 25대 제주도지사·향년 95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 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7월 11일

아들 이종식, 며느리 강정희, 증언 고은정, 충실 중배 서정애, 딸 이채영, 사위 안효근, 민자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 성명: 망 강여규 (1956. 8. 14. 생)
- 최후주소: 제주시 연무정길 54-15(견일동)

상기자는 2022년 3월 14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2년 7월 6일 제주지방법원 2022노단10226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청산에서 제의됨을 최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고처: 제주시 형사평6길 58, 110동 401호 (화북이동, 형사평 갤럭시타운)

2022년 7월 11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강보희 · 강상윤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성당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백혈병 소아암 및 희귀난치병 환우모집

아름다운 동행

(사)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는 백혈병, 소아암 및 희귀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환우와 그 가족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사업,교육지원사업, 심리정서지원사업 그리고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기금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며 후원사업과 문화사업, 홍보사업 등의 연계사업 등으로 기부문화의 중심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협회가 함께 동행 할 것입니다.

대상

백혈병, 소아암 및 희귀난치병을 진단받은 만20세 이하의 환우

신청방법

사무국 내방 상담 후 신청

신청 시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병원비 혹은 약제비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문의 및 신청

(사)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 TEL(064)752-3300 e-mail:jejubh16@daum.net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매촌동길 89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

서귀포시정소식

2022년 서귀포시 어린이 생활안전 사례 공모 알림

- 접수기간 : 2022. 6. 7(화) ~ 7. 15(금)
- 공모대상 : 서귀포시 관내 초등학교생
- 공모분야 : 3개 분야(글짓기, 포스터, 만화(웹툰))
- 공모주제 : 생활 안전 개선 등 안전 전반
- 응모형태 - 안전포스터 : 8절지(394mm×272mm) - 안전시짓기 : 8절지(394mm×272mm)(시화, 3-5행시 가능) - 만화(웹툰) : 4~6컷 분량, 8절지(394mm×272mm)
- 응모내용 -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 일상생활 속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등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시상규모 : 최우수 6명(각 10만원), 우수 12명(각 5만원), 장려 10명(각 3만원)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 064-760-3146)

제19기 서귀포시 귀농귀촌 기본교육 참가자 모집

- 신청기간 : 2022. 7. 18(월) ~ 7. 20(수) [선착순 접수]
- 모집대상 : 서귀포시민 및 (예비)귀농귀촌인
- ※2018년 ~ 2022년 상반기 서귀포시 귀농귀촌 기본교육 수료자 제외
- 모집인원 : 100명
- 교육기간 : 2022. 7. 26(화) ~ 7. 27(수) 10:00~17:00
- 교육장소 : 서귀포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
- 교육내용 : 귀농귀촌 정책분야, 기초영농, 제주이해분야 등
- 신청방법 : 팩스(760-3499), 이메일(center3497@naver.com) 신청
- 접수 및 문의 : 서귀포시 도시민유지지원센터 ☎ 064-760-3497)

‘견우지내별’ 관측프로그램 알림

- 운영기간 : 2022. 7. 19(화) ~ 8. 14(일) 20:00~22:00 / 월요일 휴관
- 운영장소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 운영대상 : 도민, 관광객 등 누구나, 온라인 예약제
- 운영내용 : 7월 7석에 서로 만나는 전설을 가진 견우와 직녀별 관측
- 관람인원 : 1회당 38명 내 (1인당 최대 4명 신청 가능)
- 예약방법 : 홈페이지->관람안내->관람예약->날짜, 시간 선택
- ※프로그램 운영 7일 전 18시부터~전날까지
- 관 람 료 : 성인 2,000원, 어린이 청소년 1,000원 ※도민 50%감면
- ※날씨가 흐린 경우(눈·비·안개·구름많음·강풍시) 관측불가
- 문의사항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 064-739-9701, 9702)